

# “원목 표고버섯 활용 다양한 상품 개발 최선”

●전남도 '4월 입업인' 최경환 천시산 농원 대표

## 장흥군 일원 5만㎡ 부지서 10만본 재배...연간 5t 생산 건표고씩두기 등 판매...입업후계 대상 노하우 공유도

“표고버섯 주산단지인 장흥에서 생산한 원목 표고버섯이 건표고차, 건표고고추장 등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되도록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가 4월의 입업인으로 장흥 유치면 소나무·참나무숲 일원에서 원목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최경환(60·사진) 천시산 농원 대표를 선정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 대표의 지난 2017년 입업후계자 등록을 시작으로 2018년 자연독립

가로 등목,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버섯을 전공하며 품질 좋은 표고버섯 생산과 다양한 상품 개발로 임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일원 5만㎡ 부지에 10만본의 원목 표고버섯을 재배, 연간 5t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생표고, 건표고차, 건표고 가루, 건표고씩두기, 건표고고추장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판매 중이다.

천시산 농원은 환경사자가 넓게 분포하고 주변 하천으로 습도가 적정하며 50~70년생 소나무



와 참나무 숲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어 식감과 향이 유독 깊다. 참나무 원목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은 참나무에 종균을 접종한 뒤 2년여 동안 배양시켜 자연환경에서 수확된 버섯이다. 참나무의 분해된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라 표고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 있으며 봄-가을 두 번 수확한다. ‘산속의 고기’로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표고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있으며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다. 특히 비타민D 생성을 돕고 에고스테롤 성분이 풍부하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열량이 거의 없어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며 철분도 다량 함유돼 빈혈을 개선한다. 풍부한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최 대표는 표고버섯 뿐만 아니라 명이나물, 돌복숭아, 눈개승마 등을 복합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 숲속의 전남 이사로 활동하며 귀촌 및 입업후계자에게 다양한 입업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경환 대표는 “도심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임산물 먹거리와 산림욕, 산림치유 등을 연계한 현장 체험형 소득모델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진도경찰, 노인대학서 교통사고 예방 교육

진도경찰서는 “최근 교통관리계에서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노인대학을 찾아 어르신 255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에 나선 이인회 교통관리계장과 전은서 순경은 사고 발생 현장 영상과 PPT자료, 가수 송가인의 홍보 영상을 활용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주제로 ▲무단 횡단·음주운전 하지 않기 ▲오토바이·다륜형 원동기 탑승 시 반드시 헬멧 착용하기 ▲보행시 우측으로 통행하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교육해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다각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 전남개발공사,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행사

전남개발공사는 8일 남악신도시 오름지구 공원숲길에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름행복초등학교, 지역 상생 도민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나무수종 3천여수를 심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나무심기 요령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들은 뒤 나무심기 작업에 나섰으며 개발공사의 경영 체계 핵심 가치인 환경·상생·안전·정렴의 의미를 담은 수목을 심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식목 행사 후에는 오름지구 일대를 돌며 쓰레기 줍기 활동과 주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누주는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흥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더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 타시·도 합동 MICE 해외 유치 설명회

전남도는 최근 여수·국동 별관 회의실에서 마이스(MICE) 행사 유치를 위한 타시·도 합동 MICE 해외 유치 팸투어·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bition & Event)의 약어로 지역 관광·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여수시와 전주시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온라인 화상시스템(ZOOM)을 통해 해외 국제회의기획사(PCO), 여행사, 학·협회, 기업 등 업체 1천여개소가 참석했다.

전남도는 다양한 마이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남의 특색있는 마이스 인프라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 소개, 지역 고유 관광자원과 연계한 휴양형 마이스 시설, 전남 유니크메뉴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기업 회의 및 포상관광과 MICE 첫 만남 가산 지원을 신설해 업계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설명회가 전남이 가진 풍부한 매력을 알려 휴양형 마이스 최적지임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여수경찰, 피상범죄 예방 금융기관 간담회

여수경찰서는 “최근 피상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금융기관 11곳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피상범죄 피해 현황, 범행수법 및 피해 유형 등이 공유됐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범죄 피해 예방 우수 사례들도 소개됐으며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피상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도 큰 만큼 관공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수 만들기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밀알중앙회(총재 채정기) 강사랑환경대학(학장 박기중, 대표 고평환)이 최근 광주시로부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8일 강사랑환경대학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교육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적으로 10곳이며, 강사랑환경대학은 호남 최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대상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기관 설립 목적 및 정관에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사(2급) 1인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서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국비 및 지방비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하다.



강사랑환경대학은 2013년 9월 제1기 환경대학 과정을 개설해 지난해 제10기 과정을 진행, 수료자는 총 250명에 이르며, 수료자들은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환경지도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등 지역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는 광주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광주진, 소태천, 수촌천, 오룡동 드론공원, 호수생태원 등 5개소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펼쳤다. /주성학기자

## 전남여성, 졸업생 취업 지원 4년 연속 ‘우수’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전국 17개 시도별 거점 학교 중 전국 유일 4년 연속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8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 따르면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지원, 양질의 취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계속지원 모델 개발 사업’으로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데 전남여성은 전라권 상업계열 거점학교로 지정됐다. ‘우수학교’는 17개 거점학교 중 상위 3개교로, 10%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에 전남여성은 올해 추가 예산을 포함해 총 1억1천만원을 확보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남여성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장 대여 프



로그램, 이미지 메이킹실, 취업지원센터 비대면 AI 면접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위민회 전남여성 취업진로부 교사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졸업생 대상 1대1 맞춤형 일자리 매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우수한 성과로 나타나 사업 실무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 목포교도소 수형자,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목포교도소는 8일 “지난 1-5일 열린 2024년 전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명이 출전해 농업기계 정비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수상자는 오는 8월24일 개최되는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다. 목포교도소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해 농업기계 정비 등 2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농기계 정비 기사 자격증 시험에 2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A(5)씨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3년 전부터 직업 훈련 교육을 받기 시작해 지난해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에 이어 올해는 금상을 수상했다. A씨는 다가올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도 금상을 받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준근 목포교도소장은 “직업훈련 교육이 미래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기능인을 양성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담양도서관, 장애인 독서·평생프로그램 개강

담양도서관은 8일 “오는 11월까지 담양 해림복지재단 및 온누리재활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독서·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인지 능력 향상과 독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림복지재단 내 3기관(종합복지관, 단기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및 책놀이 전문 강사를 파견, 장애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독서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강좌도 풍성하다. 담양도서관은 해림종합복지관·온누리재활원 소속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지, 라단공예와 요가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신체 협응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하는 취지다. 강진주 담양도서관 주무관은 “앞으로 지역 내 복지시설과 연계해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문화 격차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 부음

▲모상에서 별세,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무안신안영암)씨 모친상=발인 10일(수) 오전 8시 광주VIP장례타운 301호(062-521-4444).